

現代 Terrorism과 情報管理技法의 適用

李 相 安
(副教授, 治安研究所長)

目 次	
I. 序 說	6. 對應戰略
1. 問題의 提起	7. 戰爭과 테러의 關係
2. 研究範圍와 方法	III. 테러犯罪에 대한 情報管理技法의 適用과 限界
II. 전쟁범죄; 테러리즘의 基本接近	1. O·R
1. 테러리즘의 개념	2. Simulation
1) 狹意의 의미	3. Game Theory
2) 廣意의 의미	IV. 世界各國의 테러양상分析 事例
2. 發生過程 및 背景	(日本, 美國, 서독, 英國, 한국, 필리핀)
3. 테러의 類型	V. 結 論
4. 테러리즘의 目標物	
5. 테러리즘의 전략적 特性	

I . 序 說

1. 問題의 提起

民主主義國家에서는 政治 및 行政에 대한 責任保障統制장치로서 國民에 의한 여론, 投票, 公聽會참여 등을 實効性있는 mechanism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따라서 나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憲法에 규정하기도 하고 또 法律에서 보장하기도 하며 이는 集會, 結社의 自由로 또는 言論, 양심의 자유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이를 각도를 달리 하여 社會學的관점에서 이와같은 行爲을 고찰해 보면 佛社會學者 Alain Touraine의 지적처럼 이는 社會運動 (social action)의 한 부류일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고자 하는 關合된 集團努力 (collective effort)일 수도 있고, R·Ash의 지적처럼

이는 특정社會의 이데올로기나 社會구조를 改造 또는 變改시켜 보려는 사람들에 의해 취해지는 態度 및 自意的 (self-conscious)인 行動일 수도 있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社會운동이란 기존사회 구조나 이데올로기의 변화 또는 改造를 通하여 보다 나은 社會로의 改造 또는 逆進行動 및 逸脫을 防止하려는 一團의 行動群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와같은 社會운동은 集團行動으로 이루어 지게 되며 이때 集團行動은 특히 group的인 행동 (group behavior), 群集的인 행동 (crowd behavior), 대중행동 (mass behavior) 이중 특히 social movement的인 행동 등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 mass behavior가 강력한 結束 및 凝集力 (sense of solidation)에 의해 이루어질때 이는 社會운동 즉 demonstration 혹은 social movement로 發展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운동이 變質되어 動機와 手段이 바뀌어 改革 (Reform)이 아닌 기존사회 질서나 가치 및 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기존사회 가치체제나 이데올로기를 不法的인 手段으로 전복시키려는 급격적 무력행사의 群衆動員 (mass political mobilization)이 수반될 때 이는 革命 (revolution)으로 전환되며 이와는 특성을 달리 하지만 개체 혹은 集團이 방화, 납치, 암살, 요인감금, 점거, 약탈등의 극악적 手段으로 犯罪行爲를 저지르때 이는 terrorism으로 發展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볼때 오늘날 우리나라 학생운동을 비롯한 세계도처에서의 폭력적 행동 등을 어떻게 설명하여야 할 것인가가 우리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이의 성격규명과 더불어 대응책을 강구하고 terrorism에 대한 성격, 형태, 발생과정 및 세계각국의 양태등을 分析함으로서 이에 대처가능한 方案을 탐색코자함이 本研究의 目的이며 또한 본 연구의 동기라고 하겠다. 그리고 terrorism에 대한 발생과정 및 形態를 정확히 규명함으로서 一般的으로 O·R이론에서 정보관리기법으로 개발된 Simulation 및 Game Theory의 적용 및 그 한계를 규정해 보고자 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2. 研究範圍와 方法

본 연구는 주로 여러 集團행동가운데 mass behavior가 collective behavior 특히 crowd behavior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여러 연구결과에서 찾아보고 그리고 세계각국의 테러양상을 문헌조사를 通하여 比較해보는 comparative app-

roach 를 시도하였다. 그럼으로써 우리나라 학생集團행동이 단순한 Demonstration이 아닌 Terrorism의 특성조인을 간직하고 있는지를 규명코자 한 것이며, 관리과학에서 개발된 Simulation과 Game theory로 Terrorism의 대응전략으로서의 가능성과 한계를 설정하고자 한다.

II. 戰爭犯罪 ; 테러리즘의 接近

1. 테러리즘 (Terrorism)의 개념¹⁾

테러의 개념을 웹스터 사전에서는 強制的 手段의 조직적 행사 및 위협과 폭력의 분위기라고 설명하고 있고, 옥스포드 사전에서는 심한 공포감으로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어 따라 테러리즘 (Terrorism)은 테러가 조직화되고 체계화된 것을 말한다. 이를 狹意的 의미와 廣意的 의미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²⁾

1) 狹意的 意味

테러행위의 狹意的 의미는 일반적으로 私生活이나 會社 또는 集團間에 있어서 個人的인 감정과 集團間의 感情表出에서 찾을 수 있다. 즉 男女間의 애정문제 또는 종교간의 분쟁, 그리고 기업간의 이해관계를 놓고 상대방의 기술 및 企圖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거나 社主의 拉致·殺人등으로 상대의 集團機構를 瓦解하는데 基本戰術을 두고 있는 것을 뜻한다.

이는 특히 軍需工場이나 對外貿易關係를 주로 取扱하는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도대로 하는 것이다. 물론 경쟁회사간의 투쟁을 뜻하는 한편 과거 고용주와 피고용人間의 분쟁에서 오는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이 경제적인 측면과 요인으로 발생하는 것과 個人間의 摩擦에서 오는 감정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경우를 협의적인 테러행위로 분류한 것이다. 특히 사회적 측면에서도 어떤 社會集團의 權益을 간접으로 擁護하거나 또는 逆作用으로 이를 破壞한다는

1) 集團行動의 총체적 개념에 대하여는 「청람」경찰대학 2집 (1986)에서 발표한 바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G&C Merriam Co. p.2361

roach 를 시도하였다. 그럼으로써 우리나라 학생集團행동이 단순한 Demonstration이 아닌 Terrorism의 특성조인을 간직하고 있는지를 규명코자 한 것이며, 관리과학에서 개발된 Simulation과 Game theory로 Terrorism의 대응전략으로서의 가능성과 한계를 설정하고자 한다.

II. 戰爭犯罪 ; 테러리즘의 接近

1. 테러리즘 (Terrorism)의 개념¹⁾

테러의 개념을 웹스터 사전에서는 強制的 手段의 조직적 행사 및 위협과 폭력의 분위기라고 설명하고 있고, 옥스포드 사전에서는 심한 공포감으로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어 따라 테러리즘 (Terrorism)은 테러가 조직화되고 체계화된 것을 말한다. 이를 狹意的 의미와 廣意的 의미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²⁾

1) 狹意的 意味

테러행위의 狹意的 의미는 일반적으로 私生活이나 會社 또는 集團間에 있어서 個人的인 감정과 集團間의 感情表出에서 찾을 수 있다. 즉 男女間의 애정문제 또는 종교간의 분쟁, 그리고 기업간의 이해관계를 놓고 상대방의 기술 및 企圖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거나 社主의 拉致·殺人등으로 상대의 集團機構를 瓦解하는데 基本戰術을 두고 있는 것을 뜻한다.

이는 특히 軍需工場이나 對外貿易關係를 주로 取扱하는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도대로 하는 것이다. 물론 경쟁회사간의 투쟁을 뜻하는 한편 과거 고용주와 피고용人間의 분쟁에서 오는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이 경제적인 측면과 요인으로 발생하는 것과 個人間의 摩擦에서 오는 감정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경우를 협의적인 테러행위로 분류한 것이다. 특히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社會集團의 權益을 간접으로 擁護하거나 또는 逆作用으로 이를 破壞한다는

1) 集團行動의 총체적 개념에 대하여는 「청람」경찰대학 2집 (1986)에서 발표한 바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G&C Merriam Co. p.2361

뜻에서 수행되는 모든 테러행위는 바로 이의 협의적인 意義에 속한다고 하겠다.

2) 廣意的 意味

테러 행위에 있어서 광의적 의미는 일반적으로 國家間에 있어서 이익관계로 인해서 相對國의 政治人, 軍人, 經濟人, 노동지도자, 경찰간부, 사회봉사자, 지식인 등을 포함하여 암살이나 폭행을 가함으로써 그 사회의 혼란을 초래케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폭력행위를 말한다. 그 외에 特定國家의 건설이나 破壞 또는 離間策을 시도하기 위해서 수행되는 테러행위도 이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異民族間의 분쟁을 야기시켜 제 3의 民族의 利益이나 權益을 보호 내지 육성하기 위해서 자행되는 테러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

이와 같은 테러행위는 집단적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예가 많다. 즉 과학적인 장비나 군사적 무기로서 군대의 훈련을 받은 자들이 組別로 構成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다.

특히 主要人士나 주요시설 및 군사기지 등이 테러행위의 目標對象이 되고 있다. 물론 이들은 정당한 명분을 갖지 못하고 있으나 그들 나름대로 詭辯的인 事由와 변명을 갖고 있다. 더우기 이들의 思想的인 背景은 現實을 무시하고 未來를 추구하는 듯한 反理性的인 모순론을 지니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狹意的인 意味에서는 대체로 個人과 個人間이나 會社와 會社間이거나 소수인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 흔히들 테러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나,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집단과 집단간에 있거나 종족과 타종족간에 있어서의 분쟁관계에 있거나 또는 국가와 국가간에 있어서 자행되는 테러행위를 뜻한다. 테러분자들이 수행하는 행위의 目的은 살상과 파괴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 협의적 의미에서나 광의적 의미에서나 동일한 方法을 시도하는 것이 특색이라 하겠다.³⁾

2. 發生過程 및 背景

국제테러의 온상인 中東에서 테러와 반테러의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보복의 악순환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우려가 있다. 현재 미국과 리비아 간에 벌어지고 있는 테러공방은 反美 무차별 테러를 다짐하는 리비아 테러의 근절책으로는 단호한 응징밖에 없다는 美레이건 행정부의 입장이 正面衝突을

3) 박원탁, 국제테러리즘의 전망. 청람. 경찰대학, 1985. pp.73-75

빛은 것이다.

反테러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음에도 테러는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62년 이후 세계적으로 확인된 테러집단은 약 7백개, 이들이 저지른 테러행위만도 8천여회에 이르는 것으로 미국 정부조사는 밝히고 있다. 국제테러는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소수민족의 분리독립을 표방하는 민족주의 색채를 띤 테러와 좌익 이데올로기를 배경으로 하여 서유럽의 기존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테러가 그것이다.

전자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를 중심한 중동의 테러조직이다. 후자의 경우로는 反帝, 反核, 反부르조아 등 다양한 이슈를 내걸고 있는 서구의 도시 게릴라조직으로서 일본의 적군파, 서독의 바다 마인호프, 이탈리아의 붉은 여단 등이 여기에 속한다.

60~70년대에 걸쳐 맹위를 떨쳤던 PLO 테러는 아세르 아르타트 PLO의 장의 지도로 약화와 PLO의 세포분열로 테러 성격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아라파트의 테러는 이스라엘인을 대상으로 한 비교적 선택적인 테러였다.

20년에 걸친 PLO의 테러는 PLO를 폭력집단으로 낙인찍는 결과 외에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었다. 이에 따라 아라파트가 이끄는 주류는 협상을 추구하는 온건 노선으로 전회되었고, 이에 대한 반발로 아부 니달파 등 군소 과격집단들이 생겨났다. 미국, 이스라엘 등은 리비아의 카다피가 잔인하고 무차별적인 테러수법을 쓰고 있는 아부·니달파를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카다피는 테러지원의 가장 큰 大義名分으로 팔레스타인 독립을 내세우고 있으나 회교권을 통일, 그 盟主가 되어 보겠다는 그의 회교적인 유토피아가 理念的 바탕이 되고 있다. 카다피는 시오니즘과 '제국주의'와의 대결을 아랍주의의 聖戰으로 주장,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지원하는 모든 국가, 특히 미국과도 對決정책을 취해왔다. 서구에서 기승을 부리는 도시 게릴라는 70년대의 뉴레프트 물결(New leftist)의 소산이다.

본질적으로 이들의 테러는 허무주의에서 출발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산층 이상 가정의 자녀들이 주축이 된 도시 게릴라조직은 부르조아 사회에 대한 반발을 펴하고 있으며, 이들의 심리적인 基點에는 폭력을 미화하고 인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이념상으로 좌익성향인 이들은 그들의 이상을 실현해 줄 것으로 믿었던 유럽의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정당들이 부

르조아정권과 타협하는 데 실망을 느끼고 극단적인 체제전복 투쟁에 나서고 있다. 이들의 테러 목표는 군사시설을 비롯 政·財界 유력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中東의 테러조직보다는 선택적이다.

서구의 도시 게릴라조직이 패전국인 서독과 이탈리아, 일본에서 공통적으로 불활개를 치고있다는 점에서 승리의 영광을 맛보지 못한 이들 나라의 전후세대들의 패전국 콤플렉스가 테러라는 反作用을 낳고 있지 않나하는 분석도 있다. 국제테러는 최근 들어 두드러지게 相互連繫趨勢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연계활동은 中東의 팔레스타인 해방투쟁이 공산주의 폭력혁명이론과 접합을 이룸으로써 더욱 촉진되었다.

共產主義勢力은 회교파격파의 테러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물질적인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中東의 테러는 공산이데올로기 외에 테러를 掣戰 또는 순교로 인식하는 회교 광신주의로 인해 잔인성을 더하고 있다. 테러가 그치지 않는 것은 테러를 부추기는 강대국이 뒤에 있기 때문이다.⁴⁾

핵무기 시대인 오늘날 테러는 강대국들이 직접 대결의 위험을 회피하면서 상대방을 궁지로 몰아 넣기 위한 代理戰의 利用物이 되고 있다. 테러는 본질적으로 강자에 대한 약자의 도전이자 히스테리이다. 따라서 테러가 세계질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는 힘들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테러리즘은 그 발생과정 및 배경이 民族, 이데올로기 社會心理의 갈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테러의 類型

테러행위의 類別을 정확히 구별할 수는 없다. 이 세상 모든 종류의 파괴와 살상방법을 테러범들은 구사하기 때문이다. 다만, 시대에 따라 변천은 있었다. 과거에 비해 현대로 올수록 대량살상과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 주류를 이룬다.

지난해만 해도 인도 시크교도의 소행으로 보이는 인도 항공기 폭발사고로 민간인 승객 3백 29명이 몰사했다. 이것은 불과 몇 사람-오스트리아 황태자 부처-에 대한 저격이 제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시절에 비해 엄청난 변화이다.

4) 한국일보, 1986. p.4, 13

이렇듯 테러 방식은 대체로 제 1, 2 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하여 크게 바뀐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다. 大戰 前의 테러방식이 왕이나 황제, 각료 등 요인 암살을 주로 한 반면 대전 후는 공격목표의 대형화, 무차별로 바뀌어진다. 이같은 변모의 원인으로는 우선 무기의 발달로 大量殺傷이 가능해졌으며, 두 차례의 전쟁으로 인한 인명경시풍조를 들 수 있다.

대량·무차별 테러의 대표적 방식이 폭탄차량 공격이다. 폭발물을 잔뜩 실은 차량을 몰고 目標建物에 돌진하여 건물폭파와 함께 犯人도 폭사하는 이 방식은 83년 4월 레바논 주재 미대사관 공격 때 처음 사용된 후 중동은 물론 런던과 앙카라까지 확산됐다. 바로 그 해 한해 동안 이 폭탄 테러로 숨진 사람이 4백 30명이다.

이 방법은 그 特異性 때문에 성전에서의 죽음을 선교로 치는 이슬람 문화권 안에서만 주로 통용되며, 보안장치의 강화로 효과도 줄어 들고 있으나, 아직은 가장 가공할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비행기 납치 역시 70년대 PLO에 의해 주도되다가 몇 년 주춤하더니 84년도부터 다시 급증하고 있다. 이 방식은 그 긴박성이나 극적 要素로 매스컴의 주목을 가장 크게 받으면서도 소규모 인원과 장비로 실행이 가능해서 大義名分의 홍보를 노리는 테러범들이 주로 사용한다. 이와 비슷한 경우는 선박 납치가 있다. 지난해 10월 아킬레·라우로호의 납치사건으로 모방테러를 우려했으나 기동성이 없는 탓인지 진전없이 그치고 있다.

민간인 피해 규모로 따지면 가장 경계할 유형이 관제 테러이다. 이것은 국가 기관이나 정부가 행하기 때문에 온갖 중화기 장비를 동원하는 학살로 지난 82년 레바논의 샤브라·샤틸라 난민촌에 대한 공습 등을 꼽을 수 있다.

4. 테러리즘의 目標物

보호적 서비스는 사람이나 利益, 有形物, 無形物에 대하여 암암리에 위협이 발생할 때, 이 위협에 대한 安손을 확보하기 위하여 요청되는 활동이다. 이때 위협의 정도, 성격, 농도는 目標對象의 연구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때 安손이란 용어는 사람·재산 그리고 기타 이익을 보장하는 여러 국면을 포함한다.⁵⁾

5)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VOL. VI. ① 216

5. 테러리즘의 전략적 특성

保護(protection)를 테러와 준 테러적인 것으로부터 人命, 財産, 기타 有形, 無形 이익의 안전보장이라고 할때 Terrorism의 보다 정확한 정의는 Terror의 구성요소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테러는 위협적(intimidatory)이다. 다시 말하면 위협이나 폭행하는 사람에 대하여만 아니라 이의 영향이 他人에게도 미쳐(가족, 친구등) 행동과 생각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이는 항상 目的意圖的(purposeful)이다. 무차별 폭격 같은 야만적 행동이나 의식상실적 행동은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희생目標를 무차별하게 선택하여 결과를 가공스럽게 할 때도 있다. 그리고 때로는 그 目標物이 지역사회에서의 싸움이나 무질서, 그리고 일반화된 공포의 조성에 있기도 한다. 이때에는 아무도 다음 희생자를 예측하기 힘들게 된다.

셋째, 인간개인의 마음 속에서 行動意向(intentional)이 형성된 것이다. 즉, 이는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가치와 연관된 활동으로 구성되며, 따라서 테러분자들은 그가 영향을 미치고 싶은 사람에게 가치 있는 것으로 믿고 이를 공격한다. 이것이 테러리즘의 기본적 동태성이며 결국 효과적이라는 主理由이다.

네째, 테러는 성격상 지속적 행동(sustained activity)이다. 즉 영향을 미치도록 계획된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위협을 줌으로써 뜻을 이루는 것을 일반적으로 말한다.

다섯째, 테러리즘의 위협과 행동은 경고로서 전달되도록 설계된다(warning).

즉 테러리즘은 공포로서 人間の 마음을 지배하는 통제장치로 설계되어 있는 무기이다.

여섯째, 테러리즘은 분리적(divisive)이다. 즉, 이것은 의심과 혼란을 유발시킬 목적으로 집단을 공격하고 개인의 마음을 공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어떤 이는 他人보다 더 쉽게 놀라기도 한다.

일곱째, 암암리에 비밀의 성격(clandestine)을 띤다.

여덟째, 최소한 시초에는 고도로 非人間的 행위(impersonal activity)이다. 이는 왜냐하면 최대한의 공포의 不安을 자아내어 이들에게서 행동을 수락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능한한 비인간적으로 즉각 희생자를 내는 것이다.

이들이 하는 방법으로는 암살, 납치, 인질, 폭격, 방화, 오염, 강탈등이 있다. 이때 암살은 의도적 살인의 특수한 형태로 논쟁거리가 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테

제로 暗殺은 特定人을 영향력 영역에서 제거함으로써 어떤 일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목적하에 의도적으로 죽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납치 (kidnapping)는 몸값이나 기타 값어치 있는 물건을 확보할 目的으로 비밀장소에서 계속 抑留시키거나 구금, 통제하에 두는 폭력 혹은 비폭력적 항위로 정의된다.⁶⁾

6. 對應戰略

최근의 TWA機 폭파나 댐베블린 디스코 텍 폭파사건 등은 모두 미국인을 제 1 표적으로 노린 사건들이다. 그러나 그 피해는 비단 미국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무차별적인 학살행위였다. 최근의 테러는 兇器가 없이 아무데서나 자행되고, 테러의 기술이나 수단이 갈수록 새로와져 이렇다 할 卞족한 방지대책이 없다.

테러조직은 과거 60, 70년대의 바더마인호프 (서독) 과 붉은 여단 (이탈리아) 석군파 (일본), 무자헤딘 (이란) 등 대규모 조직 대신 아주 세분화됐고 폭탄제조나 운반, 보안검색망을 쓸모없이 만드는 새로운 기술이 속속 개발돼 사전예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난 로마에서 아테네로 가던 美 TWA 840機 (보잉 727) 폭파사건은 특히 여객기가 테러공격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다. 지난해 공중테러가 전염병처럼 번지면서 더욱 강화된 그동안의 공항보안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테러리스트를 추적, 감시관과 각국간 반테러 보안 협력체제가 말뿐이고, 테러우범지역으로 손꼽히는 카이로 보안당국이 이미 범죄경력이 있는 테러범에 대한 신생기록 등을 파악, 컴퓨터화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현재 1백 38개 국이 가입된 인터폴 (INTERPOL)은 금년부터 비로소 反테러전문기구 (UNIT)를 발족시켰으나 이런 자료 등을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데는 아직도 손을 쓰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번 TWA 사건을 계기로 당장 非금속 폭발물이나 몸 속에 감춘 소량의 폭약을 찾아내는 새 탐지기술의 개발이 급선무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미국의 전문연구 기관에서 니트로젠을 소재로 하

6) Richard W. Kobets. H.H.A. Cooper. Target Terrorism : Providing Protective Services, Maryland. 1978. pp.7 ~ 56

는 모든 폭발물을 탐지해 낼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는데 성공, 美연방공항공국에 그 모델을 금년 중으로 인도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최소한 5 가지 폭발물 탐지기술을 美政府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개발, 성공단계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대부분이 당장 실용화하기에도 테러가 빈발하는 급박한 사태와는 달리 아직도 미흡한 상태다. 다만 올해안에 실용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플라스틱제 권총등 총기류나 플라스틱제 폭발물, 심지어 아편까지도 탐지 가능한 특수 X선장치(모델 Z)의 개발이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을 뿐이다.

(다음 情報管理技法에서 戰略이 기술됨)

7. 戰爭과 테러의 관계

역사적으로 테러 행위가 잦은 지역에는 필히 전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실하다. 테러는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해 가면서 시도하는 비인도적인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테러행위가 잦은 국가나 지역에는 사회불안이 동반되며, 따라서 불안 요소로서 人間心理를 궁지에 몰아넣게 된다.

이것은 人間の 역사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며 人類文化의 후퇴를 가져오게 한다. 따라서 테러를 조장하거나 조정하는 집단은 적은 이익을 추구하려다 인류의 전부를 잃게 되는 결과가 된다. 때문에 테러리스트들은 테러행위가 전쟁으로 유도되리라고 暫定的으로나마 믿고 있다. 테러리스트들의 활동이 많아지면질수록 전쟁의 발발환경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테러犯罪에 대한 情報管理技法의 適用과 限界

테러犯罪 뿐만아니라 모든 犯罪行爲에 다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지만 특히 윌머(M.A.P. Willmer)는 경찰과 犯人間의 싸움에 있어서 정보의 역할을 理論적으로 分析하면서 犯人은 '신호의 發信者'로서 경찰은 '신호의 受信者'의 위치에 두고, 정보의 質을 평가·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犯人과 경찰의 전략을 '제로섬 게임'(Zero sum games)의 규칙으로 이 문제와 연관시키고 있다. 이 밖에 '논·제로섬 게임'(non-zero games)技法이 관련되는 상황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이 이론의 전개를 위하여 우선 경찰이 犯罪問題를 해결함에 있어 사용되는 情報(information) 개념으로 인텔리전스(intelligence)를 들 수 있다. 예컨대

는 모든 폭발물을 탐지해 낼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는데 성공, 美연방공항공국에 그 모델을 금년 중으로 인도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최소한 5 가지 폭발물 탐지기술을 美政府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개발, 성공단계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대부분이 당장 실용화하기에도 테러가 빈발하는 급박한 사태와는 달리 아직도 미흡한 상태다. 다만 올해안에 실용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플라스틱제 권총등 총기류나 플라스틱제 폭발물, 심지어 아편까지도 탐지 가능한 특수 X선장치(모델 Z)의 개발이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을 뿐이다.

(다음 情報管理技法에서 戰略이 기술됨)

7. 戰爭과 테러의 관계

역사적으로 테러 행위가 잦은 지역에는 필히 전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실하다. 테러는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해 가면서 시도하는 비인도적인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테러행위가 잦은 국가나 지역에는 사회불안이 동반되며, 따라서 불안 요소로서 人間心理를 궁지에 몰아넣게 된다.

이것은 人間の 역사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며 人類文化의 후퇴를 가져오게 한다. 따라서 테러를 조장하거나 조정하는 집단은 적은 이익을 추구하려다 인류의 전부를 잃게 되는 결과가 된다. 때문에 테러리스트들은 테러행위가 전쟁으로 유도되리라고 暫定的으로나마 믿고 있다. 테러리스트들의 활동이 많아지면질수록 전쟁의 발발환경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테러犯罪에 대한 情報管理技法의 適用과 限界

테러犯罪 뿐만아니라 모든 犯罪行爲에 다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지만 특히 윌머(M.A.P. Willmer)는 경찰과 犯人間의 싸움에 있어서 정보의 역할을 理論적으로 分析하면서 犯人은 '신호의 發信者'로서 경찰은 '신호의 受信者'의 위치에 두고, 정보의 質을 평가·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犯人과 경찰의 전략을 '제로섬 게임'(Zero sum games)의 규칙으로 이 문제와 연관시키고 있다. 이 밖에 '논·제로섬 게임'(non-zero games)技法이 관련되는 상황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이 이론의 전개를 위하여 우선 경찰이 犯罪問題를 해결함에 있어 사용되는 情報(information) 개념으로 인텔리전스(intelligence)를 들 수 있다. 예컨대

경찰이 犯人 (offender) 을 성공적으로 찾기 위하여 情報을 필요로 한다. 즉 犯人을 수색하는데 뿐만아니라 犯人임을 확인하는 의사결정 과정에는 확증이 필요 한데,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情報이다. 그런데 이 情報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犯罪現場에서 발견된 指紋을 가정해 보면 그것이 운 좋게도 인지한 犯行의 것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확인되면 바로 그것은 범인 추정에 직결될 수 있게 된다. 또다른 경우로는 一般的 특성에 속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예컨대, 인상착의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볼 때 intelligence 는 information 의 데이터가 되는 細部項目을 의미한다. 위의 예에서는 지문, 인상착의 등이 intelligence 가 되며,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因果論理에 따라 정리한 것이 information 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위버 (Weaver) 는 이때 情報의 전달인 Communication 을 연구할 때에는 3 가지 수준에서 정보를 측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技術, 意味 (semantic) 그리고 効果性 (effectiveness) 문제이다. 技術문제는 송출되는 커뮤니케이션의 심볼의 정확성 (accurarcy) 에 관한 것이고 意味問題는 송출되는 심볼이 원하는 뜻을 전달하는 정밀성 (precision) 의 문제이며 효과성 문제는 수신한 뜻이 수신자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方法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 커뮤니케이션의 수학적 이론은 技術問題에 주로 적용되며 정보의 발신자와 수신자 간에 생길 수 있는 誤謬 (error) 의 최소화로 메시지의 송신과 관계되는 기술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경찰조직내에서 information 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능이 인텔리전스 (intelligence) 기능을 구성한다. 대부분의 경우 intelligence 는 조직적 犯罪의 범위·영향·발생과 관련있는 information 을 분석·수집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최근에는 이 기능 (intelligence) 이 대체로 사회와 개인들에게 위협을 주는 테러집단과 급진집단에 대한 information 을 分析하는 문제로까지 擴大되어 오고 있다. 대부분의 정보기관은 정보요원과 비밀요원을 광범위하게 活用함으로써 운용되는데, 이 정보기능을 수행하는 정보 요원은 통상적으로 스태프기능을 수행하고 계선적으로 봉사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리고 이때 대부분의 정보담당과의 직원은 책임자에게 직접 보고하여 조직의 결정권자가 정보와 분석에 입각한 전략적·비밀적 결정을 용이하게 한다. 이렇게 볼때 경찰행정관은 정치적 문제와 관련된 反對者와 민주적 과정에서의 폭력적 敵對者를 구별해야 하며, 대체로 경

찰의 정보활동의 바람직한 목표는 주장이나 의견의 反對者(dissenters)가 아니라 폭력적인 敵對者(violent opponents)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미를 경찰의 목표 및 수단과의 관계에서 보면 경찰의 1차 목적인 사회질서유지와 人命 및 財産의 보호, 그리고 2차 目標인 犯罪예방, 犯人 捕獲, 구속 등이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기능은 경찰기능의 主運用 기능이지만 보조 및 支援(auxiliary service)기능으로 운용되고 있고 이는 專門的 知識을 요하며 必要할 때에는 情報수집 및 해석에 필요한 전문기관을 요하기도 하며 별도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해석을 구할 때도 있다. 그리고 이 정보기능은 체제적으로 타기능과 상호작용을 하도록 되어 있다. 예컨대, 情報의 제공이 先行된 犯罪진압, 犯罪수사, 作戰出動에 필수불가결하게 연계되어 있는 체제가 바로 이 경우이다. 그러나 企劃機能이 일반부서의 경우에는 스태프기능이 되나 경제기획원에서는 주기능(계선)이 되듯 치안본부의 경우 정보기능은 주운용기능이 되며 정보를 예방기능으로 파악할 때에는 경찰조직의 기능 및 목표에 비추어 보면 라인기능 또는 더욱 정확하게는 라인 내의 전문스태프로 재 분류할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경찰조직이 주기능으로 갖는 정보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이를 토대로 결정되는 테러등의 犯罪예방에 대한 의사결정관리기법으로 주로 사용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O·R의 模型

O·R에는 기준설정에 따라 많은 모형이 개발되어 있으나 중요한 것으로는 配分模型(allocation-model)으로 주어진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활동 계획이며, 대표적인 것이 선형계획법(linear programming)이다.

둘째는 多段階決定模型(multi-stage. decision model)으로 이의 대표적 기법이 動的計劃法(dynamic programming)이며, 이외에 在庫模型(inventory model), 待期行列 模型(queuing model), 順次模型(sequencing model), 損益分岐點分析이 있다. 이 밖에 특히 경찰의 의사결정에 직접 도움을 둘 수 있는 것으로서 Game theory와 MIS를 들 수 있다.

2. 시뮬레이션(Simulation)

경찰순찰차를 신고에 따라 배치하는 상이한 전략 및 테러 예방책을 시뮬레이션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책임 지정 구역을 순찰하는 경찰차는 豫防活動 순찰 중인 차량이거나

신고에 따라 출동한 차량일 수 있다. 중앙통제실로 부터 출동한 차량은 접수한 신고에 대응하기 위한 차량으로서 임무를 지니게 되는데 이때 임무는 광역관할을 책임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때 순찰차는 어떤 사건을 처리하거나 관할구역 내의 어떤 신고에 대응하는 임무를 갖게 된다. 만약 이때 이 관할구역이 아래와 같이 9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여 각각의 지역은 한 차량으로 서로 연결되게 되어 있다고 할 때, 그 차량은 그 관할부문의 내에서만 예방순찰을 하게 되어 있지만 임무로 규정된 신고 (calling)에도 대응할 것이다.

지금 어떤 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그 지역에 배치된 차량은 사건 현장에 파견되는 것이다. 만약 그 지역의 차량이 어떤 사건의 처리때문에 바쁜상태라면 다른 차량이 현장 신고지점에 일을 처리하게 된다. 비지정업무에 대한 사건처리 결정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즉 파견지정자가 인접지역의 차량을 출동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사건현장의 위치에 가장 가까운 지역의 차량 (squashing squad) 을 출동시킬 수도 있다.

예컨대, sector 2 에 있는 A 지점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인접지역 차량이 작전 임무수행 중에 있다고 하면 파견지정 통제관은 1, 3, 5 중 어느 것을 선택해도 차이가 없게된다. 만약 事件現場에 가장 가까운 지역 내에 있는 차가 모두 파견되어 버렸다면 그때 통제관은 차량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事件 중심의 비지정구역 배치 방법은 엄격한 중앙 統制的 대량출동과 수정된 중앙통제적 대량 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신청에 대응할 이동 가능한 여유 차량이 없다면 그 신고는 순서대로 기다리게 된다. 대기 중인 신고에 대응할 차량을 재지정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이때 재지정이라는 말은 차량이 이전의 신고 업무완수로 출동하고 豫防巡察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용되는 용어으로써 가장 오래 기다린 신고부터 재지정, 출동시키거나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신고, 그리고 가장 인접된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전화 때 재지정하게 된다. simulation의 目的은 순찰활동에 있어서 우선적 신고의 영향을 결정짓는 일이다.

1	①	2	② A	3	③
4	④	5	⑤	6	⑥
7	⑦	8	⑧	9	

※ 9개 순찰지역 관할과 순찰차의 이동계획 : ①은 예방순찰차, ②는 신고 출동차량, 차량⑨는 8번 지역에 파견 출동 중임.

이런 상황에서 시뮬레이션을 설명하면 우선 관할구역이 9개로 나누어져 있고 이것이 앞의 그림처럼 되어 있다고 할때, 決定狀況에 3가지의 확률요소가 있게 된다. 첫째, 순찰차가 事件現場에 도착했을때 소요되는 서비스 시간은 40분간으로 配定된다. 둘째, 신고접수가 시간당 11.4건으로 포아송(poisson) 분포를 이루고, 셋째, 事件發生의 위치가 일정하게 순관할에 분포된다. 어느지점에서고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이와같은 3가지 확률 요인을 제외하고 만약 申告가 우선 순위화 될때 접수되고 있는 신고의 우선 순위는 역시 확률요인이 된다. 인지된 확률분포는 다음 두가지 결정대안으로 기술된다.

① 신고가 優先 순위화되지 않고 수정된 中央 집중과견 전략이 사용되고 차량을 가장 오래 대기한 申告에 재배치 하는 대안.

② 先買權 없이 申告가 우선순위화되고 수정된 中央 집중과견 전략이 사용되고 차량은 그들의 우선 순위 기준 내에서 기다리고 있는 신고에 배치하고, 우선순위 제공 내에서 가장 근접된 사건에 차량이 배치되는 경우, 그리고 각각 우선순위 제공에 대하여 가장 출동거리가 먼 쪽이 치유되는 代案이다.

위의 代案 2에서는 차량이 이용가능하다고 할때, 그것은 우선순위 1을 기다리고 있는 신고에 재배치하고, 만약 이때 우선순위 1이 두개라면 차량은 가장 가까운 신고에 배치되고, 우선순위 1이 없다면 우선순위 2에 가까운 신고에 재배치된다. 만약 우선순위 2의 신고도 없으면 그차는 예방 순찰에 대비하도록 본래 구역으로 되돌아간다.

우선순위가 주어질 때의 사건별 순위를 보면 우선순위 1에는 진행중인 범죄, 곤경에 빠진 경찰관, 심한 교통사고 등이고, 이때 출동시간(response time)은 중요한 요소이며, 대체로 신고 전화의 5%정도가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우선순위 2에는 과거에 발생했고 신고된 범죄, 가족분쟁, 기타 소요 등인데 이는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끝으로 우선순위 3은 소화전 작동 공원폭력등 이것은 출동시간은 별로 중요치 않고 약 50% 정도 차지한다.⁷⁾

이상 3群에 대한 유효적절한 출동속도는 1群 犯罪의 경우 시속 15마일, 2群 犯罪의 경우 12마일, 3群 경우에는 10마일을 요청한다. 그리고 비우선순

7) Christopher. K. Mckenna. Quantitative methods for Public Decision making McGraw-Hill. Co. 1980. pp.350 - 351

위화된 代案에서는 평균 15 마일 속도를 요한다. 이 때 최고 출동가능한 거리는 각각 우선순위별 群에 따라 규정되며, 이들 거리는 事件의 우선순위뿐 아니라 출동 차량의 신분에 따라 달라진다. 임무 배치에서 고려 대상이 되는 차의 신분은 다음 중의 하나인데, 그 하나는 순찰 중인 차이다. 그리고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뒷마무리에 동원된 차량과 끝으로 순찰임무를 배정받고 있는 차로 구분된다.

이상을 요약하면 다음 表와 같다. 즉 우선순위 1번의 申告事件은 거리에 제한이 있을 수가 없고 우선순위 2번에 대하여는 예방순찰차가 배치되나 그것은 1마일 이내일 경우에만 그 사건에 재배치된다. 예방순찰로 복귀한 차량은 그것이 2마일 내에서 발생한 우선순위 2번 사건에 배치될 수도 있는 것이다.

최고출동가능거리 (마일)

신고우선순위	차 량 의 위 치 (역 할)		
	예 방 순 찰 차	이전임무마무리	순찰복귀차량
1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2	"	1	2
3	2	0	2

※ 각지역은 (Sector) 4면이 (1마일×1마일)

그리고 申告의 도착비율은 매일 다른데 도착비율이 시간당 9건 이하일 때, 우선순위화된 신고의 혜택이 확실치 않다. 즉 우선순위의 의미가 없게 된다. 그리고 서비스 시간이 40분간이고 평균 출동시간이 5분일 때 신고당 출동 총시간은 약 45분이 되는데 이것은 9대의 차를 가지고 출동운영체계를 운영할 때, 이의 대처능력이 시간당 12건의 신고에 적당하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볼때 시간당 11.4건인 신고 도착비율일 경우 利用要素는 약 95%이며, 이런 수준에서 우선순위화된 申告의 영향은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난다.

우선순위 1 群의 신고는 어떤 거리로부터도 출동 가능하고 2, 3은 최고 출동거리가 제한된다. 그러므로 우선순위 1의 申告는 보다 먼 거리에까지 순찰차량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비우선순위화된 代案에 비하여 우선순위 1로 된 신고가 평균 출동거리 명에서 증가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고의 대기시간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늘어나는 출동시간을 보상할 수 있게 된다. 중요한 요소는 우선순위 1의 신고에 대한 11.1분이 비우선 순위사건 신고의 25분보다 상당히 낮은 총 출동시간을 갖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우선순위 2에 대한 총 출동시간은 출동속도가 비록 시속 3마일로서 비우선순위 대안하에서 전제된 것보다 우선순위 2의 사건에서는 낮지만 비우선사건과는 동일한 것이다.

이와 같은 시뮬레이션은 다른 순찰과 출동대안 고려에서도 반복될 수 있고, 신고 건수의 우선순위화에 관계없이 체제특성은 차를 현장에 출동시킬 때 차량의 정확한 위치를 고려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차량 위치확인 시스템은 통제관이 출동결정을 내릴 때 부간히 최신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며, 이것이 결정정보체계, 즉 MI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과 연관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특히 Terror와 같은 신속대응을 요하는 범죄행위는 최고 우선 순위로 배정되어야 하며 이것이 사전에 예방적으로 이루어지려면 C3와 같은 컴퓨터시스템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고 볼 수 있고 이와같은 정보관리체제의 도움이 없으면 테러에 대한 시뮬레이션技法은 그 적용에 한계가 있게 된다.

	비 우선 순위신고	우 선 순 위 신 고		
		1 순 위	2 순 위	3 순 위
평 균 출 동 시 간	5	7.5	4.8	6
평 균 대 기	20	3.6	20	42
평 균 총 출 동 시 간	25	11.1	24.8	48
구간간 임무비 비율	0.83	0.85	0.66	0.52

※ 경찰순찰체제 특성: 평균 신고 도착비율; 시간당 11.4건, 평균봉사시간: 45분 (9 cars)

3. 게임理論 (Game theory)

경찰에 대한 보상은 犯人에 대하여는 비저티브報償이 된다. 이와 같은 갈등은 제로섬 게임 (zero-sum games)으로서 게임이론 (Game theory)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미니맥스 (minimax)의 전략이며 각각 상대방이 갖고 있는 전략이다. 지금 犯人と 경찰이 각각 두개의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볼 때, 이는 4가지의 가능한 결과를 갖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을 매트릭스 (matrix)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犯人에 의하여 송출되는 신호의 크기에서)

		경찰의 전략	
		P ₁	P ₂
犯人の 전략	C ₁	6	8
	C ₂	4	15

이 매트릭스에서 만약 犯人이 전략 C₁을 택하여 犯行하고 경찰이 전략 P₁으로 대응한다고 할 때 송신되는 기대신호는 6單位가 된다. 그런데 만약 경찰이 전략 P₂를 택하게 되면 기대되는 예상 신호값이 8單位가 된다. 이와 유사하게 犯人이 전략 C₂를 택하고, 경찰이 전략 P₁을 택하면 4單位가 된다.

끝으로 C₂, P₂의 戰略組를 채택할 때, 기대신호값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경찰은 송출신호 수신을 최대가 되도록 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보면 犯人立場에서 가장 바람직한 결과는 P₁, C₂ 전략이며, 경찰의 立場에서 가장 바람직한 作戰은 P₂, C₂組이다. 더우기 犯人이 어떠한 전략을 택하든 경찰은 항상 P₁ 보다는 P₂로서 하는 것이 成功的일 것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전략 P₂는 P₁을 압도하게 된다. 만약 犯人이 C₂ 전략을 채택하고 경찰이 犯人의 가장 낮은 신호 송출 대신에 P₂를 채택하게 되면 犯人은 가장 높은 단위로 송출하게 된다. 反對로 犯人이 C₁ 전략을 택하면 그는 8단위의 신호만 송출해도 되고, 또 경찰이 하는 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할 수 있다. 여기에서 minimax 해결책이 C₁, P₂의 戰略組로 제시된다. 이 해결책이 이렇게 될 때 어느 한 쪽이 그 전략을 그만 두거나 다르게 할 때 상대방 어느 한쪽은 利益을 보게 되고 작전상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전략 채택이라는 意思決定에 있어서 行動代案의 선택을 위한 評價基準 (Criteria)은 未來狀況의 발생 확률에 대한 예측성 여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는 Maximin 평가기준, Maximax 평가기준 그리고 Minimax regret 평가기준, 平均利得意思決定 평가기준 (average pay off decision) 등이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 Maximin 原理가 가능한 최악의 이득들 가운데에서 최선의 것을 가져오는 行動代案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보수적인 意思決定 接近方法이라면 Maximax 원리는 낙관적인 의사결정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各行動代案이 가져올 수 있는 최대의 이득상황만을 고려하고 이를

각 대안들과 관련된 최대이득들을 비교하여 그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이득을 가져오게 되는 行動代案을 선택하도록 하는 평가기준이다.

끝으로 최대 후회의 最小化 (minimax regret) 원리는 機會喪失을 후회라고 보고 후회라는 시점에서 측정한 이득은 한 상황에서 最大利得을 가져오는 행동대안의 이득과 실제로 어떤 代案을 선택했을 때, 가져오게 된 이득을 비교하여 두 이득들 간의 差로서 주어진다. 결국 이 경우에는 후회값들을 비교, 가장 작은 후회값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되는 行動代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기준이다. 바로 犯人과 경찰의 作戰戰略은 이 minimax regret 기준에서 볼 수 있는 의사결정 접근방법이다. 전술한 Simulation과 MIS 등도 이와 관련되는 의사결정 기법들이다.

IV. 세계 각국의 테러 및 폭동 최근양상 및 事例

오늘날처럼 국가테러가 빈번해지면 자칫 세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향할 가능성마저 있다.

테러는 어떤 論理로도 그 자체에 正當性을 부여해서는 안되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테러에 조바심하여 살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85년에 인류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던 것으로는 AIDS, 기아 등도 있으나 테러는 이들과는 달리 피할 수도 있었던 '악의 적 人災'라는 점에서 격렬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85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랜드 연구소는 금세기 말까지 유혈테러와 그로 인한 희생자는 계속 늘어나고 테러건수는 12~15%씩 증가할 것이란 불길한 보고서를 펴내 '테러로 부터의 해방'은 금년에도 기대난이라는 예고를 하고 있다. '終戰 후 세계대전은 없었지만 전쟁이나 다름없는 테러로 인해 지구 위에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드誌는 10여년 전에는 일주 평균 10건씩이던 테러 발생빈도가 최근 2~3년간에는 1일 평균 10건씩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테러의 양상도 암살, 유괴, 납치 등 비교적 한정된 방법에서, 폭탄장치, 항공기 납치에 이어 최근 수년간에는 폭탄차를 몰고 目標物에 돌진, 함께 자폭하는 자살

각 대안들과 관련된 최대이득들을 비교하여 그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이득을 가져오게 되는 行動代案을 선택하도록 하는 평가기준이다.

끝으로 최대 후회의 最小化 (minimax regret) 원리는 機會喪失을 후회라고 보고 후회라는 시점에서 측정한 이득은 한 상황에서 最大利得을 가져오는 행동대안의 이득과 실제로 어떤 代案을 선택했을 때, 가져오게 된 이득을 비교하여 두 이득들 간의 差로서 주어진다. 결국 이 경우에는 후회값들을 비교, 가장 작은 후회값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되는 行動代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기준이다. 바로 犯人과 경찰의 作戰戰略은 이 minimax regret 기준에서 볼 수 있는 의사결정 접근방법이다. 전술한 Simulation과 MIS 등도 이와 관련되는 의사결정 기법들이다.

IV. 세계 각국의 테러 및 폭동 최근양상 및 事例

오늘날처럼 국가테러가 빈번해지면 자칫 세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향할 가능성마저 있다.

테러는 어떤 論理로도 그 자체에 正當性을 부여해서는 안되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테러에 조바심하여 살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85년에 인류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던 것으로는 AIDS, 기아 등도 있으나 테러는 이들과는 달리 피할 수도 있었던 '악의 적 人災'라는 점에서 격렬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85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랜드 연구소는 금세기 말까지 유혈테러와 그로 인한 희생자는 계속 늘어나고 테러건수는 12~15%씩 증가할 것이란 불길한 보고서를 펴내 '테러로 부터의 해방'은 금년에도 기대난이라는 예고를 하고 있다. '終戰 후 세계대전은 없었지만 전쟁이나 다름없는 테러로 인해 지구 위에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드誌는 10여년 전에는 일주 평균 10건씩이던 테러 발생빈도가 최근 2~3년간에는 1일 평균 10건씩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테러의 양상도 암살, 유괴, 납치 등 비교적 한정된 방법에서, 폭탄장치, 항공기 납치에 이어 최근 수년간에는 폭탄차를 몰고 目標物에 돌진, 함께 자폭하는 자살

테러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핵무기, 화학무기에 의한 가공할 대량 테러의 날도 멀지 않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근들어 테러의 방법과 수단이 더욱 잔인해지고, 발생 건수, 지역, 피해도 확대되면서 테러에 대한 대응도 단호해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자국민을 살해한 PLO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보복하기 위해 수천 km나 떨어진 튀니지의 PLO 본부를 공습하고 대발로 만들었고, 레이전 行政府는 이탈리아의 호화 여객선 납치범을 태운 이집트 여객기를 다시 납치하는등 테러는 또 다른 테러를 불렀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잡히지 않은 채 악순환만 되풀이됐다.

지배자가 단순히 자신의 支配權을 유지하기 위하여 폭력을 휘두르던 테러리즘의 본래 의미는 이제 개인이나 단체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지르는 일반적 폭력행위로까지 그 定義 범위가 확대됐다.

또한 최근의 테러리즘은 과거의 이데올로기 지향에서 이슈지향으로 변모했다. 일반적으로 테러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소련조차 작년 9월 베이루트 주재 외교관의 피남 살해를 경험한 것도 그 한 예이다. 최근 우려스러운 사태는 일부 國家가 테러단체를 직·간접으로 지원하는 국가테러의 등장이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美·리비아 간의 긴장관계로 리비아가 테러분자들을 지원·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미국이 이를 보복하겠다는 데서 빛어지고 있다. 미국과 소련도 자멸을 초래할 전면대결을 피하면서 정보기관을 동원 테러戰을 지원하고 있다. 유럽의 반핵 운동이나 여타 反美·反帝國主義 운동 단체가, 소련이나 동구권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美 CIA (중앙정보국)가 南美 등에서 좌익정권과 투쟁하는 게릴라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이미 공공연하게 드러난 비밀이다.

시리아나 北韓도 테러분자를 훈련시키거나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은 리비아도 테러훈련소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 PLO 대원들을 내쫓기 위해 82년 레바논을 침공, 선전 포고 없는 전쟁을 했고 작년에는 PLO의 테러행위를 응징한다는 명목으로 전세기를 동원, 남의 나라에 있는 PLO 본부를 습격한 것도 국제테러나 다름 없다.

국제 테러리즘은 한 社會의 범죄와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반영한다. 테러지역의 대명사격인 중동이 그 대표적인 예로 통한다.

이스라엘의 건국과 팔레스타인 민족의 유랑, 아랍민족의 뜻을 무시한 강대국들의 전횡 등 모순과 부조리에 가득찬 중동은 테러리즘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다.

영토없는 PLO를 많은 나라들이 國家地位를 부여하고 있는 데 비해 이스라엘은 PLO를 집단으로 규정, 중동평화협상에서 아예 제외시켜 놓고 있다.

PLO도 이스라엘의 생존권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다른 地域의 테러도 그 원인은 유사하다. 랜드 연구소의 젠킨스氏는 “앞으로도 테러는 계속될 것이 거의 틀림없고 테러를 근절시킬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물론 좋은 조짐도 나타나고 있긴 하다. 지난해 12월 유엔안보지에서는 미국과 소련이 모처럼 共同補助를 취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美·蘇 양大國의 공동보조가 근본적으로 근절책은 되지 못한다. 작년 한해 테러행위는 77個國을 대상으로 자행됐다. 테러는 막대한 인명·재산의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

테러로 平和가 달성된 적은 아직 역사에는 없으며 이들 각국 즉 日本, 美國, 유럽, 서독, 英國, 佛, 필리핀, 우리나라의 최근 테러 양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日本의 테러양상 事例

1) 日本國鐵 파괴사건

85년 11월 29일 오전 일본 과격파 그룹의 동시 다발공격에 의해 東京都와 오오사카(大阪) 일원의 국유철도가 마비되어 심각한 교통혼잡을 야기했던 일본 국철이 바로 이것이다.

일본국철 파괴사건은 통신신호용 케이블을 절단하고 화염병을 사용하여 驛舎를 방화하는 등 이날 발생한 동시계렬라 사건으로 東京의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인 山手線과 中央線을 비롯한 23개 국철선이 첫열차부터 오후 늦게까지 운행불능 상태에 빠졌으며, 이로 인해 각 직장에서는 지각·결근사태로 정상적인 업무가 수행될 수 없었다.

이 사건은 도오쿄의 위성도시 지바(千葉)의 동력차 노동조합(重組)이 국철 민영화 및 감원에 반대하여 24시간 파업에 들어가자 이를 지원하는 과격파 그룹 中核派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급진 左派계렬라들의 난동은 교오또와 히로시마 등 7개 都·府·縣에서 발생했다.

中核派 계렬라들은 이날 새벽 3시 20분부터 國賊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고 東京내 6개소의 지하통신 및 신호케이블이 이 시간 끊겨나갔다.

오전 7시가 되자 케이블 절단뿐만 아니라, 화염병 공격도 병행되기 시작했다. 약 50 여명에 달하는 계렬라들이 헬멧과 마스크를 쓴채 쇠파이프를 들고 東京 동부 아사쿠사바시驛에 몰려들었다. 이들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화염병을 던졌다.

2) 日皇宮, 美大使館 공격 사건

日本인이 선행했하는 日皇의 궁정과 최대 우방으로 치는 美國의 駐日 대사관 선행에 관한 로키트탄이 날아든 사건이다.

69년 3월 25일 하오 1시 20분,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경찰이 범인으로 단정하고 있는 中核派는 23개 과격파 가운데 전향하는 혁명단체로 공산주의 동맹 선전위원회를 가리키며 25일의 砲撃 로키트탄 발사 사건은 다국파간의 협력적인 투쟁의 객시됐음을 알리는 첫실초이다.

범인들은 궁성 및 국외사관 부근에 경찰서나 의사소기 있는지를 탐구하고 砲撃 로키트탄을 트렁크에 상치한 자동차를 그 부근에 주차시켰으며 발명시간을 십야를 선택을 피하고 피났으며 지경했다는 점에서 중립의 의의를 폈었다. 사건현장은 300방이 많아 경제가 잠진해져기 쉬운 지역이다.

사건과관련 외한 파괴활동은 지난 72년 이후 6백 50건, 약전하는 87건, 올해 1월 10건의 일차 10건의 일차였다. 이들은 명원을 지정권내 주로 투쟁이 있는 트럭이나 과격속 많이 사용했으나 이번에는 승용차를 트렁크에 砲撃로키트탄을 時 1발씩, 동시에 2개 지역에서 발사하도록 면밀한 계획을 세웠다.

이날은 작년 1월 나라타(成田) 공항확장공사 반대투쟁을 할 때로 박격포탄을 발사시킬 정도로 무기제조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경찰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中核派는 사회주의에 의한 세계 혁명의 시대가 온다고 믿고 있으며 사회주의 사회건설은 기성 좌익당파에 의하지 않고 독자적인 혁명으로 추구한다는 이론바 新 在野운동을 과격할 수단으로 띄고 있다.

이들은 철저한 지하 점조직으로 암약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 정보망에도 쉽사리 걸리지 않고 있다.

일반회사원뿐만 아니라 때로는 국영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도 中核派에 가담한

일도 있으며 직장에서 가장 착실하다고 소문난 사람이 中核派의 극렬 행동대원으로 밝혀져 주변 사람들을 경악시킨 경우도 있다.

경찰自書에 따르면 日本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과격파는 약 3만 5천명이며 이중 中核派는 3백여 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다음 테러 연계조직망 1, 2, 3, 4 참조)

황실에 대한 과격한 행동은 지난 75년 ‘아카히토’ (明仁) 황태자가 오끼나와를 방문할 때 화염병 투척사건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4) 황태자궁 영빈관에 화염탄 테러 사건

86년 3월 31일 오후 6시 50분쯤 東京都내 나토미區에 있는 오는 5월의 선진국 정상회담장인 영빈관과 그 옆의 아키히토 황태자 거처인 동궁을 향해 금속제 화염탄 3발이 발사된 사건이 발생했다.

금속제 화염탄이 동궁 영빈관이 있는 일본황실의 별궁에서 약 400 m 떨어진 신주쿠區 미나미모토동의 공무원주택단지에서 주차 중인 소형트럭에서 3발이 발사돼 영빈관과 동궁 그리고 발사현장 부근에서 각각 불발된 채로 발견됐으며 소형트럭의 발사장치에 1발이 남아 있는 것을 경시청이 확인한 사건으로 경찰관 1명이 부상하였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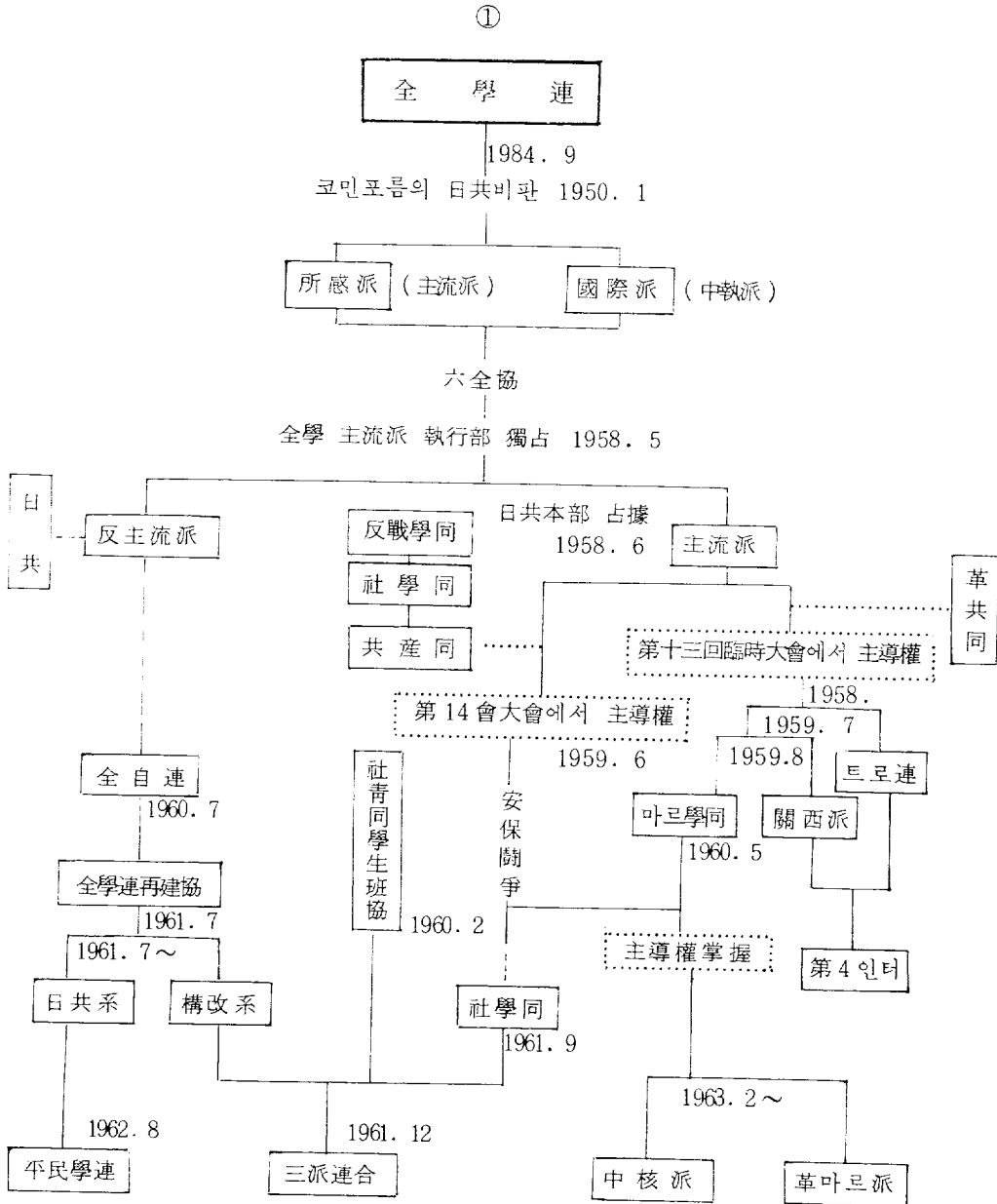
이상의 사건을 일으킨 극좌 과격파 행동 대원의 구성 및 조직을 발생과정 및 체제도표에서 보면 다음과 같으며 中核派의 위치등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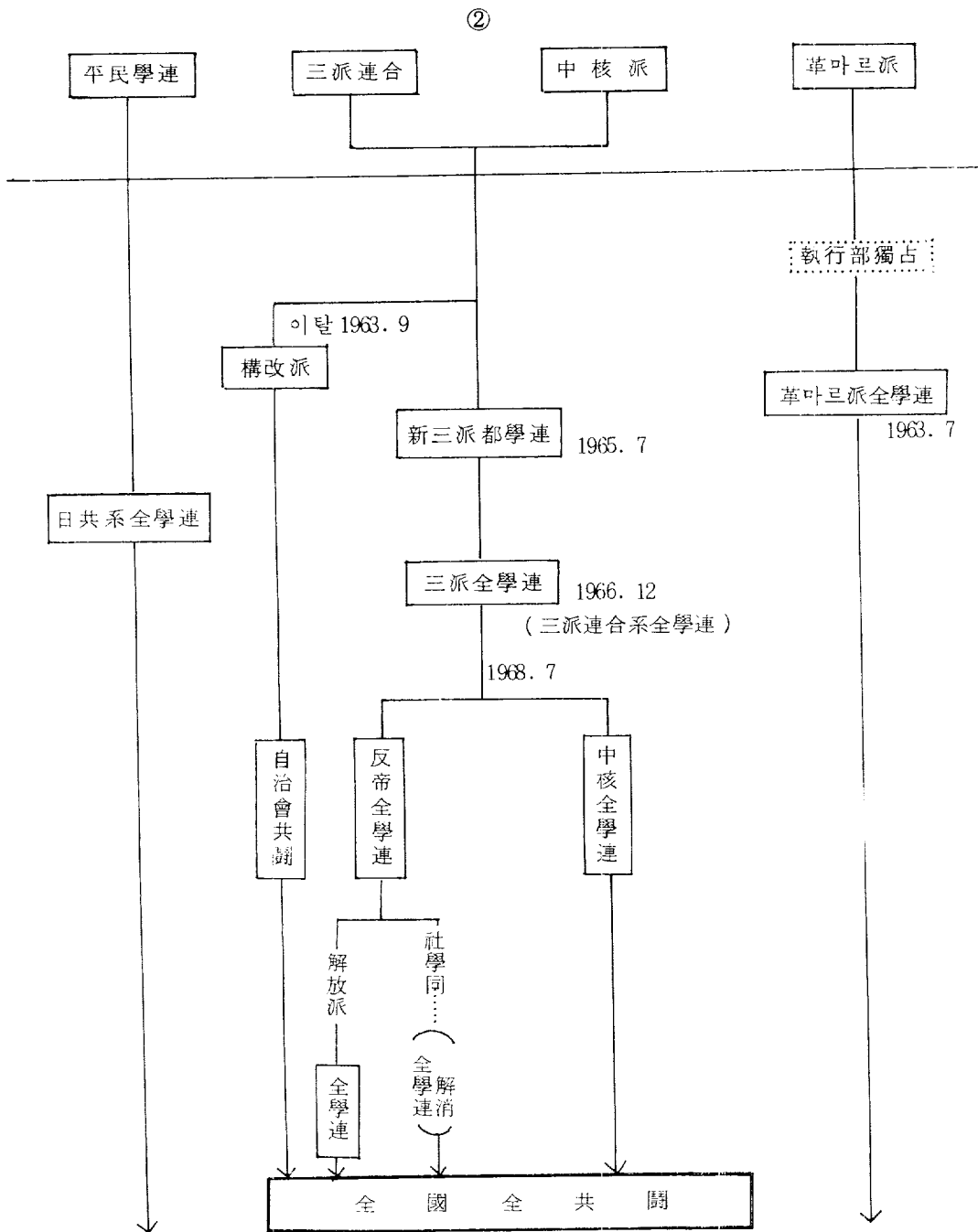
8) 중앙일보, 86. 3.26

9) 조선일보, 86. 3.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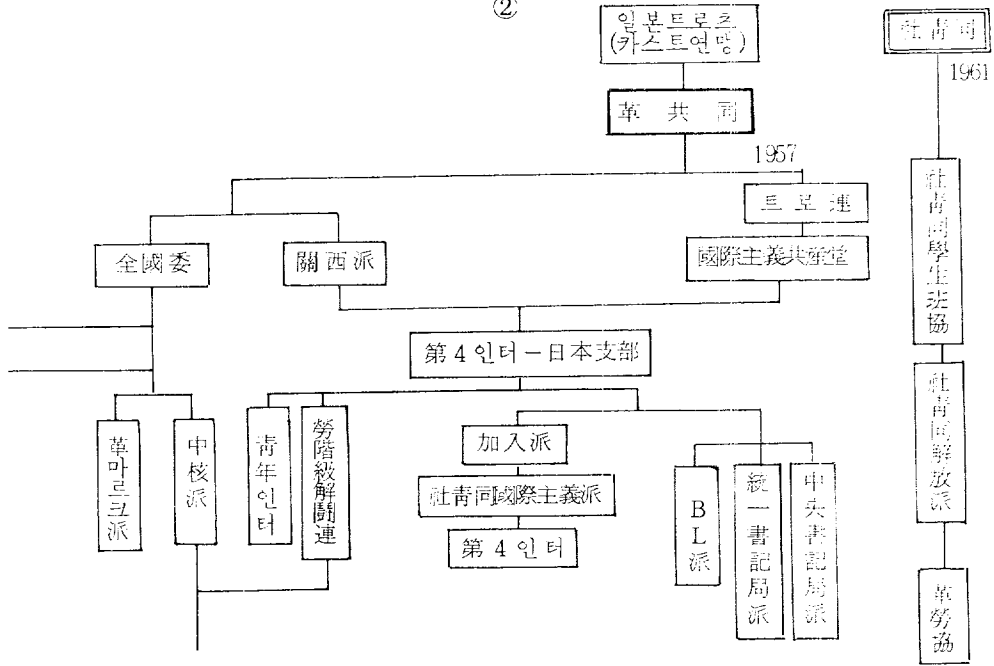
日本 全學聯 · 全共闘 연계 조직 망

(1) 전학련결성에서 전국전공투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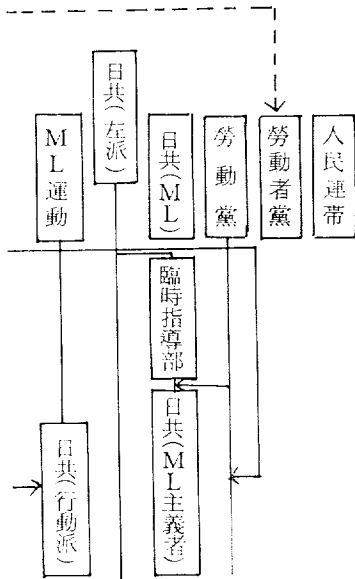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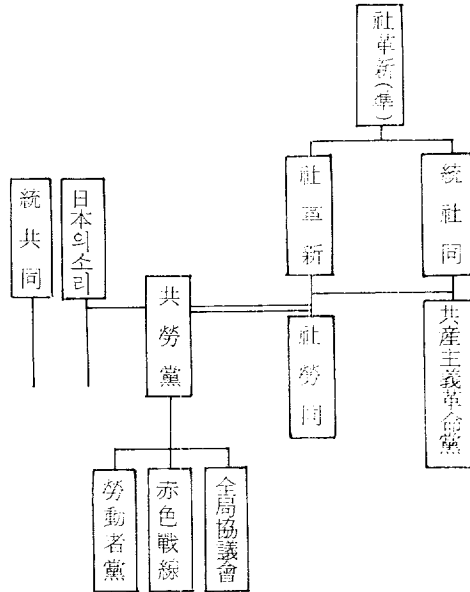
②



日共左派系



構改派



2. 美國의 最近 테러양상 및 특징

테러리즘(terrorism)은 특히 미국국민의 지대한 관심사가 되었다. 즉 테러에 대한 保護조치가 단순한 연방정부의 의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과 생명의 保護(Protection) 및 公共질서의 유지(maintenance of public order)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州 및 地方政府의 기본 책임으로 되게 된 점이다. 그러므로 이는 聯邦의 FBI와 州 및 地方政府下의 경찰기관 共同관할을 갖기도 하며 協同體制를 구축하고 있는 일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최근 FBI의 W.H. Webster가 밝힌 바에 의하면 1970년대 이래 전체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는 강력한 공안력의 대응으로 1983년 동안에는 테러 犯罪 건수가 줄었으나 테러의 目標 및 대상이 會社의 社長 및 집행간부에 두어져 왔으며 1968~1981 간에 7425건의 테러 중 1688件이 이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음이 美國務省 조사통계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1973~1982년 간의 전세계적인 테러 犯罪 사건 6,473件中 2,510件이 美國民에 대한 테러 犯罪였다는 점이 특이성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그리고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조치가 경찰업무中 가장 어려운 일로 분류되는 이유는 테러리스트(terrorist)들이 일반적으로 犯罪前科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들의 동기가 전형적으로 政治的이며 細細한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정보제공자(informants)에 노출되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나 많은 테러집단이 잠재된 상태를 보이고 있다.

테러에 대한 FBI의 對應조치를 보면 5가지 중요한 요인을 내포하고 있는데 첫째, 알려진 테러조직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보자료와 수사를 지속하며 둘째, 주요 국가사건에 테러활동의 가능성을 미리 탐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셋째, FBI 인질구출팀(FBI hostage rescue team)이 대규모 인질사건에 대처하는 지속적 훈련을 계속하고 있을뿐 아니라, 넷째, 컴퓨터 지원 system이 FBI 본부에 설치되어 테러에 연관된 정보를 분석해주고 있기 때문으로 보았다.

그리고 끝으로 Quantico에 있는 FBI 아카데미의 특수작전연구반(special operation and research unit)이 FBI 外에서 일어나는 政治心理的인 접근방법에 의한 테러연혁 및 기록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았다.

그리고 테러리스트(terrorist)의 자신의 문제로서 개별적인 특성을 지적한 바에 의하면 테러리스트들은 中上流의 가정환경에서 태어난 大學卒業 및 훈련을 경험한 20~40세의 Age Group에 속하며 그들은 개인적인 失敗의 경험을 가지고 있을뿐 아니라 자주 정치적으로 자극되는 社會 및 政治的 환경속에서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들 테러의 주요 시설에 대한 공격목표는 전력회사와 특히 핵발전사업에 있음을 FBI는 지적하고 1970년대 中·下半期에 많았으나 1978년 이래는 없어진 기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테러의 犯罪手段 및 형태는 폭탄·폭발(bombings), 납치(kidnappings) 혹은 고문(extortion), 암살(assassinations) 방화(firesetting), 화학오염(contamination) 등이다.

이상의 테러 및 납치에 대하여 美法務省(The Department of Justice)은 聯邦정부에 몇가지 대응책을 제시한 바 있으며 또한 의회(Congress)로 하여금 여러분야에서 立法化를 권고하고 있는데 이들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납치 및 인질범죄의 처벌과 예방에 관한 法律이 전국적인 犯罪상황에 대처 가능하도록 만들어져야 하며 이렇게 할 경우에만 제3자에 대한 협박이 강제되는 희생은 막을 수 있다고 보았다.

둘째, 1984년의 항공기피납법은 타계약주의 항공시설 및 비행기를 포함한 광범한 영토 管轄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테러법에 관한 정보에 대한 報償은 해외테러행위에 연관된 보상의 지불까지도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1984년의 테러 단체법의 훈련과 지지를 反對하는 금지규정은 외국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게 되어 있고 테러로 지지하는 어떤 정부나 국제단체에 기술과 훈련을 제공하려는 美國內 사람까지도 규제하도록 설계되었다.

이외 FBI는 Terror와 납치사건이 발생할때는 주로 물리적인 감시와 전화회사와 협조를 통하여 해결함도 한 방편임을 제시하고 있다.¹⁰⁾

한편 유럽에서의 美國人에 대한 테러양상으로서의 '리비아' 극가원수 '무아

10) Colwell. W. LEE, Designing a corporate response to terrorism police chief, 1985. Feb.

마르 카다피'의 美國 내의 美시설물에 대한 테러공격 위협과 關係, 美國 전역의 공항과 항만 등 출입국 시설물에 보안조치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한편 '유럽'의 北大西洋조약기구(나토) 동맹국들도 자국내 美軍시설물에 대한 테러공격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美國 시카고의 3개 공항은 리비아의 테러공격에 대비, 보안경보를 내리고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은 공항주변에 정복 보안요원들을 증강 배치하기로 한다.

'볼티모어' '워싱턴' 국제공항 경비경찰들은 주인없는 가방을 특히 경계하라는 지시를 받고 포탄 탐지용 경찰견을 대기시켜 놓았다고 전했다.

'카다피' 원수는 美國의 '국가테러리즘'에 대한, 이를 '영구격멸'키 위해 '아랍' 각국은 모두 자살특공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美 대사관 등 美國의 이익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것은 '어느 곳에 있는 것이든' 무차별 공격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은 '리비아'의 자살테러 공격에 대비, 국내의 주요 공항과 해외 주재 美 시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서독 등도 이날 自國內 공항과 美대사관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나서는 등 경계강화의 조치를 단행함에 이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책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3. 西獨 폭동과 테러의 최근 양상

86년 9월 28일 西獨의 新나치주의 극우정당인 國家民主黨의 프랑크푸르트 집회에 반대하는 시위자중 1명이 경찰의 시위진압 과정에서 사망한 데서 비롯된 항의시위는 30일 오전 현재 프랑크푸르트를 비롯 함부르크, 서베를린 등 15개 도시로 확산, 유혈폭력, 방화 및 약탈 등이 난무하는 폭동으로 번졌으며 이로 인해 3백여 명이 체포됐다고 경찰이 밝혔다.

경찰은 지난 28, 29일 15개 도시에서 수천 명의 시위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 30일 오전까지 계속됐으며 최소한 8개 도시에서 폭력사태가 일어났다고만 밝혔다.

함부르크에서는 수십 명의 시위자들이 거리를 행진, 차량방화와 함께 수채의 건물을 습격했다고 경찰이 전했다. 경찰은 또 서베를린 시위사태 중에는 시위자들이 방화와 함께 경찰차에 투석하는 등 중전의 평화시위가 폭력사태로 발전, 경관 4명이 부상하고 55명이 체포됐다고 전했다.

마르 카다피'의 美國 내의 美시설물에 대한 테러공격 위협과 關係, 美國 전역의 공항과 항만 등 출입국 시설물에 보안조치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한편 '유럽'의 北大西洋조약기구(나토) 동맹국들도 자국내 美軍시설물에 대한 테러공격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美國 시카고의 3개 공항은 리비아의 테러공격에 대비, 보안경보를 내리고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은 공항주변에 정복 보안요원들을 증강 배치하기로 한다.

'볼티모어' '워싱턴' 국제공항 경비경찰들은 주인없는 가방을 특히 경계하라는 지시를 받고 포탄 탐지용 경찰견을 대기시켜 놓았다고 전했다.

'카다피' 원수는 美國의 '국가테러리즘'에 대한, 이를 '영구격멸'키 위해 '아랍' 각국은 모두 자살특공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美 대사관 등 美國의 이익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것은 '어느 곳에 있는 것이든' 무차별 공격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은 '리비아'의 자살테러 공격에 대비, 국내의 주요 공항과 해외 주재 美 시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서독 등도 이날 自國內 공항과 美대사관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나서는 등 경계강화의 조치를 단행함에 이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책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3. 西獨 폭동과 테러의 최근 양상

86년 9월 28일 西獨의 新나치주의 극우정당인 國家民主黨의 프랑크푸르트 집회에 반대하는 시위자중 1명이 경찰의 시위진압 과정에서 사망한 데서 비롯된 항의시위는 30일 오전 현재 프랑크푸르트를 비롯 함부르크, 서베를린 등 15개 도시로 확산, 유혈폭력, 방화 및 약탈 등이 난무하는 폭동으로 번졌으며 이로 인해 3백여 명이 체포됐다고 경찰이 밝혔다.

경찰은 지난 28, 29일 15개 도시에서 수천 명의 시위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 30일 오전까지 계속됐으며 최소한 8개 도시에서 폭력사태가 일어났다고만 밝혔다.

함부르크에서는 수십 명의 시위자들이 거리를 행진, 차량방화와 함께 수채의 건물을 습격했다고 경찰이 전했다. 경찰은 또 서베를린 시위사태 중에는 시위자들이 방화와 함께 경찰차에 투석하는 등 중전의 평화시위가 폭력사태로 발전, 경관 4명이 부상하고 55명이 체포됐다고 전했다.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좌익시위자들이 폭동진압경찰에 의해 시가행진이 좌절된 후 1일 다시 모이기로 결의한 뒤 해산했는데, 이곳의 한 지하방송은 1일밤 '무장시위'를 벌일 것을 촉구했다고 경찰이 밝혔다.

한편 28일 프랑크푸르트 시위 중 경찰의 시위진압용 고압방수 차량에 깔려 숨진 겐터사케氏(36)의 어머니는 프랑크푸르트 경찰을 과실치사혐의로 고소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 서독의 우익계 정치가들이 시위통제법을 강력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녹색당은 폭동진압시 경찰의 무기사용을 보다 억제시킬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조선일보 85. 10. 2)

4. 英國의 人種暴動

영국에서 최근 흑인을 중심으로 한 유색인들의 과격한 폭동이 잇따라 일양나면서 심각한 사회적 과문을 던지고 있다.

85년 9월초 영국 제2의 도시 버밍검에서 수명의 사망자를 낳은 흑인 소요가 있는지 3주일이 채 못돼 런던에서도 28일과 29일 양일간 대규모 폭동이 발생, 英國社會가 안고 있는 유색인 문제가 다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런던 남부 흑인빈민가인 브릭스톤에서 일어난 이번 폭동은 이 지역 일대를 '완벽한' 무법천지로 만들어 놓았다. 한 흑인 여인에 대한 경찰의 총격사건에 흥분한 2백여 명의 흑인 청소년들은 경찰서에 몰려가 항의를 벌였다. 이들 중 일부는 길가 상점에 들어가 약탈을 하거나 지나가는 차를 세워 불을 지르고 바리케이트를 만들었다.

인근 건물이나 창고는 화염에 휩싸였으며 헬멧이나 복면을 쓴 청소년들은 빈드림통에 휘발유를 담아 경찰쪽으로 굴러 보내고 화염병을 던져댔다. 일부 경찰관들은 이들과의 충돌에서 칼로 찔리는 부상을 입기도 했으며, 폭동자 가운데는 일부 백인도 가담했다. 더구나 총을 맞은 흑인여인이 사당했다는 소문이 나돌면 서부터 폭동은 더욱 악화됐다.

50여 명의 중경상자가 생기고 1백 49명이 체포, 4년전 같은 곳에서의 소요 이후 최대의 인종폭동으로 기록되는 사건이 되었다.

이번 사태의 1차적 계기는 '1명의 도둑을 잡기보다는 10명의 시민을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뛰는 일이 없는' 영국 경찰이 과잉경찰력을 발동했다는 데 있다. 경찰은 최근 발생한 강도사건의 용의자를 찾기 위해 그의 가택을 수색했으나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좌익시위자들이 폭동진압경찰에 의해 시가행진이 좌절된 후 1일 다시 모이기로 결의한 뒤 해산했는데, 이곳의 한 지하방송은 1일밤 '무장시위'를 벌일 것을 촉구했다고 경찰이 밝혔다.

한편 28일 프랑크푸르트 시위 중 경찰의 시위진압용 고압방수 차량에 깔려 숨진 겐터사케氏(36)의 어머니는 프랑크푸르트 경찰을 과실치사혐의로 고소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 서독의 우익계 정치가들이 시위통제법을 강력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녹색당은 폭동진압시 경찰의 무기사용을 보다 억제시킬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조선일보 85. 10. 2)

4. 英國의 人種暴動

영국에서 최근 흑인을 중심으로 한 유색인들의 과격한 폭동이 잇따라 일양나면서 심각한 사회적 과문을 던지고 있다.

85년 9월초 영국 제2의 도시 버밍검에서 수명의 사망자를 낳은 흑인 소요가 있는지 3주일이 채 못돼 런던에서도 28일과 29일 양일간 대규모 폭동이 발생, 英國社會가 안고 있는 유색인 문제가 다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런던 남부 흑인빈민가인 브릭스톤에서 일어난 이번 폭동은 이 지역 일대를 '완벽한' 무법천지로 만들어 놓았다. 한 흑인 여인에 대한 경찰의 총격사건에 흥분한 2백여 명의 흑인 청소년들은 경찰서에 몰려가 항의를 벌였다. 이들 중 일부는 길가 상점에 들어가 약탈을 하거나 지나가는 차를 세워 불을 지르고 바리케이트를 만들었다.

인근 건물이나 창고는 화염에 휩싸였으며 헬멧이나 복면을 쓴 청소년들은 빈드림통에 휘발유를 담아 경찰쪽으로 굴러 보내고 화염병을 던져댔다. 일부 경찰관들은 이들과의 충돌에서 칼로 찔리는 부상을 입기도 했으며, 폭동자 가운데는 일부 백인도 가담했다. 더구나 총을 맞은 흑인여인이 사당했다는 소문이 나돌면 서부터 폭동은 더욱 악화됐다.

50여 명의 중경상자가 생기고 1백 49명이 체포, 4년전 같은 곳에서의 소요 이후 최대의 인종폭동으로 기록되는 사건이 되었다.

이번 사태의 1차적 계기는 '1명의 도둑을 잡기보다는 10명의 시민을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뛰는 일이 없는' 영국 경찰이 과잉경찰력을 발동했다는 데 있다. 경찰은 최근 발생한 강도사건의 용의자를 찾기 위해 그의 가택을 수색했으나

그 과정에서 용의자 어머니에게 ‘우발적’으로 발포, 중상을 입히면서 흑인들의 감정을 크게 자극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태가 의외로 커진 데에는 흑인들이 영국사회에서 받는 처우에 대한 누적된 불만, 암울한 장래 등이 근본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이들은 대부분의 서유럽 내 유색인들이 그렇듯 빈민가를 형성해 살고 있으며, 전체 영국 실업률 13%선보다 훨씬 높은 35%의 실업률에서 보이는 것처럼 취업의 기회도 크지 않다. 흑인 거주지역은 마약거래, 강도, 매춘 등 범죄우발장소인 것이 보편적이다.

또 비교적 노골적이거나 두드러진 것은 아니지만 백인들이 유색인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이나 멸시감 등은 흑인 청소년들로 하여금 비정상적인 길로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사실 이번 발포사건만 하더라도 백인여인이었을 경우 경찰이 총을 빼들었겠느냐는 것이 이들의 불만이다. 흑인들이 백인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소외감은 언제 또 다른 폭동으로 이어질지 모르는 불씨를 안고 있다는 데 영국 유색인사회의 문제점이 있다.

정부당국은 가급적 흑인에 대한 각종 지원을 확대하고 주민들과의 교류를 적극 추진하는 등 흑인들의 불만을 줄이는 방향의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색인종에 대한 백인사회의 ‘어쩔 수 없는’ 이질감이 불식되지 않는 한 근본적 해결책은 없는 것 같다.

한편 이번 폭동을 야기시킨 경찰의 발포를 놓고 영국경찰의 총기 소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영국경찰은 보통 경찰봉만을 갖고 순찰하며 무기는 소지하지 않는다.

10명 중 1명꼴로 무기훈련을 받는 데다 소지여부는 무장범인들과 충돌할 가능성에 한해 허가가 된다. 그러나 이번 브릭스톤에서의 발포는 비무장한 여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는 데 對정부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¹¹⁾

5. 佛國의 최근 테러양상

이와같은 일련의 테러행동은 최근까지도 계속되어 86년 11월 17일 밤 8시경 파리 14구역에서 발생한 프랑스의 세계적 자동차회사인 「르노」의 「조르지 베스」회장이 총격으로 피살된 것은 테러단체의 전형적 手法인 暗殺의 행위인 것이다. 이는 좌익테러단체인 「악송 디렉트」의 단원으로 보이는 남여 2명이 오

그 과정에서 용의자 어머니에게 ‘우발적’으로 발포, 중상을 입히면서 흑인들의 감정을 크게 자극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태가 의외로 커진 데에는 흑인들이 영국사회에서 받는 처우에 대한 누적된 불만, 암울한 장래 등이 근본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이들은 대부분의 서유럽 내 유색인들이 그렇듯 빈민가를 형성해 살고 있으며, 전체 영국 실업률 13%선보다 훨씬 높은 35%의 실업률에서 보이는 것처럼 취업의 기회도 크지 않다. 흑인 거주지역은 마약거래, 강도, 매춘 등 범죄우발장소인 것이 보편적이다.

또 비교적 노골적이거나 두드러진 것은 아니지만 백인들이 유색인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이나 멸시감 등은 흑인 청소년들로 하여금 비정상적인 길로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사실 이번 발포사건만 하더라도 백인여인이었을 경우 경찰이 총을 빼들었겠느냐는 것이 이들의 불만이다. 흑인들이 백인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소외감은 언제 또 다른 폭동으로 이어질지 모르는 불씨를 안고 있다는 데 영국 유색인사회의 문제점이 있다.

정부당국은 가급적 흑인에 대한 각종 지원을 확대하고 주민들과의 교류를 적극 추진하는 등 흑인들의 불만을 줄이는 방향의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색인종에 대한 백인사회의 ‘어쩔 수 없는’ 이질감이 불식되지 않는 한 근본적 해결책은 없는 것 같다.

한편 이번 폭동을 야기시킨 경찰의 발포를 놓고 영국경찰의 총기 소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영국경찰은 보통 경찰봉만을 갖고 순찰하며 무기는 소지하지 않는다.

10명 중 1명꼴로 무기훈련을 받는 데다 소지여부는 무장범인들과 충돌할 가능성에 한해 허가가 된다. 그러나 이번 브릭스톤에서의 발포는 비무장한 여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는 데 對정부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¹¹⁾

5. 佛國의 최근 테러양상

이와같은 일련의 테러행동은 최근까지도 계속되어 86년 11월 17日 밤 8시 경 파리 14구역에서 발생한 프랑스의 세계적 자동차회사인 「르노」의 「조르지 베스」회장이 총격으로 피살된 것은 테러단체의 전형적 手法인 暗殺의 행위인 것이다. 이는 좌익테러단체인 「악송 디렉트」의 단원으로 보이는 남여 2명이 오

도바이를 타고 지나가면서 총을 쏜 사례로 볼 수 있다.¹²⁾

6. 필리핀의 테러양상

한편 필리핀에서 최근에 발생한 한국인 기술자 2명의 납치(Kidnapping)는 新人民軍(NPA)이라는 게릴라의 소행으로서 이 또한 전형적인 Terrorism의 양상이라 볼 수 있다.¹³⁾

7. 한국에 대한 제외국의 테러 징후

소련이 최근 北韓에 미그-23 전투기, SA-3 地對空미사일 등을 供給한데 이어 다시 유독가스를 채운 화학포탄을 제공하고 있음은 이것이 바로 유독가스오염(contamination)의 한 形態로 北韓의 화학포탄 보유는 한국군에는 화학전의 防衛能力이 거의 없고 韓國이 비무장지대(D.M.Z)를 따라 고정진지를 구축, 방어능력을 갖추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유독가스공격은 지극히 위험한 위협적인 것이라는 것이 日本언론들의 지적이기도 하다.¹⁴⁾

이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북괴 공작원의 음모로 보이는 아시안게임 직전의 김포공항시설파괴 및 인명 殺傷은 우리나라에서의 테러 징후를 예견케 하는 것이며 버마랭군요인암살테러는 外國에서 發生한 국제테러이지만 우리나라에는 큰 상처를 준 전형적 국제테러의 양상으로 볼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하다.

한편 국내적으로는 최근에 발생한 建大사태를 비롯한 몇몇 사태에서 테러행동 범주에 분류될 수 있는 집단행동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때 행동자들의 가정환경 및 전공을 분류해 보면 다음 表와 같으며 이는 美國, 日本에서의 구성원과 人口·社會的 배경을 같이 해가는 양상을 볼 수 있다.

建大사건 관련학생들의 생활상황 (1,525명)

직업별	상업	농업	회사원	노동	공직자
	390	234	206	107	93

11) 조선일보, 85.10.

12) 동아일보, 86.11.18.

13) 조선일보, 86.11.19

도바이를 타고 지나가면서 총을 쏜 사례로 볼 수 있다.¹²⁾

6. 필리핀의 테러양상

한편 필리핀에서 최근에 발생한 한국인 기술자 2명의 납치(Kidnapping)는 新人民軍(NPA)이라는 게릴라의 소행으로서 이 또한 전형적인 Terrorism의 양상이라 볼 수 있다.¹³⁾

7. 한국에 대한 제외국의 테러 징후

소련이 최근 北韓에 미그-23 전투기, SA-3 地對空미사일 등을 供給한데 이어 다시 유독가스를 채운 화학포탄을 제공하고 있음은 이것이 바로 유독가스오염(contamination)의 한 形態로 北韓의 화학포탄 보유는 한국군에는 화학전의 防衛能力이 거의 없고 韓國이 비무장지대(D.M.Z)를 따라 고정진지를 구축, 방어능력을 갖추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유독가스공격은 지극히 위험한 위협적인 것이라는 것이 日本언론들의 지적이기도 하다.¹⁴⁾

이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북괴 공작원의 음모로 보이는 아시안게임 직전의 김포공항시설파괴 및 인명 殺傷은 우리나라에서의 테러 징후를 예견케 하는 것이며 버마랭군요인암살테러는 外國에서 發生한 국제테러이지만 우리나라에는 큰 상처를 준 전형적 국제테러의 양상으로 볼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하다.

한편 국내적으로는 최근에 발생한 建大사태를 비롯한 몇몇 사태에서 테러행동 범주에 분류될 수 있는 집단행동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때 행동자들의 가정환경 및 전공을 분류해 보면 다음 表와 같으며 이는 美國, 日本에서의 구성원과 人口·社會的 배경을 같이 해가는 양상을 볼 수 있다.

建大사건 관련학생들의 생활상황 (1,525명)

직업별	상업	농업	회사원	노동	공직자
	390	234	206	107	93

11) 조선일보, 85.10.

12) 동아일보, 86.11.18.

13) 조선일보, 86.11.19

공 직 자 별	공 직 자											
	교사	내무 공무원	농협	교수	교 공무원	통 공무원	체 공무원	신 공무원	군인	경찰	판사	검사
	37	15	8	6	5	4	4	4	3	1	1	5

생활 수 준 별	上 流	中 流	下 流
		106명 (7%)	809명 (53%)

전 공 별	인 문 계	사 회 계	법 학	기 타
		437	228	97

이상의 테러양상 및 특징을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비교적
으로 고찰할 수 있다.

14) 中央日報, 86.11.17.